



2021년 경륜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경주가 24~26일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요즘 특선급 중상위권 선수들의 경기력이 최고조에 올라 있어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수·김·동·세’ 컨디션 상승세 뚜렷

(수성·김포·동서울·세종팀)

대상경주 휩쓴 임채빈의 ‘수성’ 주목 가장 많은 특선급 멤버 보유한 ‘김포’ ‘동서울’ 선행력 갖춘 정해민 다크호스 선행 거포 김범수 합류 ‘세종’도 부상

올해 경륜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경주가 24일부터 26일까지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완화된 방역 방침과 새로 도입한 온라인 발매로 인해 정상적으로 개최한다.

2021년 정규 시즌은 온라인 베테이가 시작된 8월부터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베테이로 휴장이 없이 출전을 한 선수들의 경기력이 이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다. 현재 특선급 중상위권 선수들의 경기력은 최고조다. 이중에서도 유독 컨디션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들이 있다.

●수성팀, 전지훈련으로 훈련 강도 높여 우선 올해 대상 경주를 모두 석권한

25기 임채빈이 속한 수성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임채빈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치고 돌아온 10월 중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 중이다. 최근에는 광명 전지훈련도 진행했다.

빠른 시속을 자랑하는 임채빈의 인터뷰는 팀원들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임채빈이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팀 2진급 선수들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김민준을 비롯해 류재열, 류재민, 안창진, 김원진 등이 그랑프리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쇄골부상에서 벗어난 류재열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김포팀, 전체적으로 상승 무드

현 경륜 훈련지 중 화력 면에서 가장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경륜 훈련지 중 가장 많은 특선급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팀원 24명 중 특선급만 무려 15명이다. 특히 상위 톱 랭커 10인에 정종진, 황승호, 공태민, 정재원 등 4명이나 포

진되어 있다.

아무래도 팬들의 관심사는 정종진의 그랑프리 4연패 가능성이다. 공태민과 정재원의 상승세도 대단하다. 공태민은 전전후형으로 결승 진출 시 한 방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서울팀, 정해민·신은섭 회복세

김포팀과 더불어 수도권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동서울팀은 한동안 주춤했던 정해민과 신은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진급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해민의 상승세에 힘입어 그랑프리 최대 변수로 떠오른 다크호스다.

최근 정해민은 특유의 선행력을 앞세워 강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선행뿐 아니라 추임이나 쪼이기까지 전법의 다양성도 돋보인다. 경주운영이 나아져 그랑프리 결승 진출 시 입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전원규, 곽현명, 조영환 등 10여 명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수적이나 질적으로 수성, 김포팀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세종팀, 탄탄한 허리라인 갖춰

수장인 황인혁 선수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탄탄한 허리라인을 바탕으로 그랑프리 전까지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면 파란을 일으킬 훈련지다.

상승세가 뚜렷한 김관희와 김환윤을 비롯해 선행력이 우수한 임치형, 정태양, 황준하, 조주현 등이 있어 김포, 동서울, 수성팀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얼마 전 팀에 새로 합류한 선행 거포 김범수는 총복 양승원, 전영규와 연합전선 구축이 가능하다.

최근 황인혁이 홀로 광명의 수성팀에 합류해 같이 훈련 중인 점도 긍정적이다.

최강경륜 설계석 편집장은 “수성팀이 임채빈의 그랑프리 우승 만들기 프로젝트를 앞세워 맹훈련 중이지만 김포팀과 동서울팀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선행 거포를 대거 거느린 세종, 충청 연합팀의 협공도 만만치 않아 2021년 그랑프리는 예선부터 어느 해보다 지역 대결이 치열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왼쪽부터 네 번째)과 공단 스포츠단 감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 지도자 간담회 카누팀 2회 연속 종합우승 등 성과 공유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9일 미사경정공원에서 스포츠단 지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과 스포츠단 감독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년도 스포츠단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중장기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은 2000년 창단한 사이클과 마라톤을 비롯해 펜싱, 카누, 여자축구, 다이빙, 장애인스키 등 7개 종목 74명(감독 6명, 코치 6명, 선수 6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과 제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합숙소 입소 자율권, 휴식과 여가시간 보장, 다이빙팀 수상훈련장 확보, 한방의료 복지서비스를 위한 협약체결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도쿄올림픽 펜싱에서 김정환, 구본길이 금·동메달을 획득했고 다이빙에서도 우하람이 본선 4위라는 대한민국 다이빙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또한 스포츠단은 국내의 각종 대회를 통해 총 97개(금 36개, 은 38개, 동 23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년도 77개에 비해 20개나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중 특히 카누팀의 2회 연속 종합우승과 사이클팀의 개인추발 대회신기록 달성이 눈여겨 볼만한 결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참가횟수가 축소된 상황에서 거둔 성적이라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카누 감독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하여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 우수성과를 낸 지도자와 선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스포츠단의 지속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등급산정 앞둔 경정...주선보류 위기 선수 ‘주의보’

‘막판 스피트’ 최대 변수 떠올라

경정은 1년에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 등급산정을 한다. 평균득점을 기준으로 승급과 강급을 실시하며 성적이 미달된 선수들은 주선보류라는 제재를 받는다.

주선보류는 말 그대로 경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1기부터 13기 선수 중 성적(평균득점) 하위 5% 이하가 주선보류 대상자다. 또한 평균 사고점 1.2점 이상과 3번기 연속 0.8점 이상인 선수도 포함된

다. 2년간 출발위반 2회를 범할 경우에도 주선보류 1회가 주어진다. 주선보류 기간은 반기(6개월)이다.

반면 주선보류 소멸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인들은(14·15·16기) 실전 경험이라는 정도 쌓일 때까지 유예기간도 준다. 성적 미달로 받는 주선보류는 데뷔 후 4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사고점 초과는 예외 없이 적용한다.

이번 시즌 45회차까지 성적으로 살펴봤을 때 평균득점 미달로 인한 하위 5% 이하

의 주선보류 위기 선수는 류해광, 황만주, 사재준, 한운, 김재윤이다. 주선보류 탈출 커트라인에는 김종희 선수가 있다.

주선보류 위기의 선수들은 조건에 상관없이 남은 경주에서 승부를 걸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막판 스피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록차가 크지 않은 김현덕을 비롯해 강영길은 시즌 마무리까지 최대한 점수를 지키는 플레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주선보류 1회를 기록한 강영

길, 김재윤, 김종희, 김현덕, 한운, 황만주는 평균득점 미달과 높은 사고점으로 주선보류 1회가 더 누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일혁, 심상철, 이재학은 출발위반 2회로 이미 내년 전반기 주선보류가 확정됐다.

임병준 폐속정 예상분석전문가는 “주선보류를 총 3회 당하면 은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미 강창호, 김지훈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며 “성적을 올려놓지 못한 선수들은 등급산정 마감에 다가올수록 위기 탈출을 위해 매 경주 사투를 벌이다 보니 이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들을 눈여겨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연예

예매율 95%...연말 극장가 달구는 ‘스파이더맨’

(14일 기준)

62만8000명 예매...‘이터널스’의 2배 오늘 개봉...첫 주 100만 관객 넘을 듯

‘스파이더맨’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연말 극장가를 휩쓸 기세다.

15일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이 개봉하는 가운데 14일 오후 실시간 예매율 95%(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를 넘겼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95.2% 예매율에 예매 관객수도 62만8000여 명으로 폭발적인 흥행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의 예매율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최다 수치이다. 11월3일 개봉한 역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 ‘이터널스’이 기록한 개봉 하루 전 종전 최고치 30만6000장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이는 관객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영화는 연출자 존 왓츠 감독과 주연 톰 홀랜드의 2017년 ‘홈커밍’과 2019년 ‘파 프롬 홈’을 잇는 3부작의 정점에 해당한다. 2002년 샘

레이미 감독·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과 2·3편 및 2012년과 마크 웹 감독·앤드류 가필드 주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2014년 2편과도 다른 이야기이다.

‘파 프롬 홈’에서 자신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주인공 피터 파커가 진정한 슈퍼 히어로가 되어가는 성장기이다. 이를 위해 닥터 옥토퍼스·그린 고블린·일렉트로·샌드맨·리자드 등 역대 ‘스파이더맨’ 속 악당 캐릭터가 모두 등장해 스파이더맨에 맞선다.

특히 위기에 놓인 스파이더맨이 또 다른 슈퍼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도움을 요청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른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 불리는,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을 연결하는 거대한 스토리를 새롭게 펼쳐낸다. 시공간에 균열을 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인 ‘멀티버스’(평행우주)로 이야기를 확장해 ‘마블 팬덤’의 기대를 모은다.

또 22일 나란히 개봉하는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와 ‘매트릭스:리저렉션’과 함께 외화 대작의 열기로 연말 극장가를 달굴 것으로 보인다. 김영병의 가파른 확산세를 타고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운다. 29일 ‘킹메이커’와 ‘해피 뉴 이어’ 등 한 국영화 기대작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영병 확산 이후 가장 화려한 극장 라인업을 이룰게 된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15일 개봉하는 마블의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이 사전 예매율 95%를 넘기며 팬데믹 이후 최다 예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제공 | 소니픽처스